

8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일본]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단위:백만엔)

구 분	1-6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농림축수산물	3,950,167	-1.5
농 산 물	2,041,101	-5.3
축 산 물	661,124	-0.1
임 산 물	495,524	-5.7
수 산 물	750,980	12.8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청과물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백만엔)

품목	2011년 한국수입	'12.1~6	'11.1~6	증감%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박	67	69	112	△38.5	한국	41	멕시코	19	미국	9
멜론(신선)	249	1,768	1,874	△5.6	멕시코	1,593	한국	130	뉴질랜드	31
밤	2,281	274	362	△24.5	중국	259	이탈리아	11	한국	4
딸기(신선)	298	318	306	4.1	미국	286	한국	33	-	-
토마토	532	790	307	157.1	미국	335	한국	320	뉴질랜드	60
결구양배추	86	1,095	629	74.1	중국	839	한국	186	타이완	63
배추	16	19	8	134.1	한국	11	중국	9	-	-
가지		4	0.3	1574.5	한국	4	-	-	-	-
기타버섯	143	89	123	△27.4	한국	46	터어키	12	프랑스	11
고추속·피망속	5,916	6,415	4,468	43.6	한국	4,328	뉴질랜드	1,237	네덜란드	843
파프리카	5,632	6,195	4,308	43.8	한국	4,109	뉴질랜드	1,237	네덜란드	843
표고버섯(건조)	111	2,958	3,144	△5.9	중국	2,939	한국	18	홍콩	0.3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6월 야채수입 전체동향

- 2012년 6월의 야채수입량은 전년동월비 111%인 237,213톤으로 나타남. 종류별로 보면, 「신선야채」는 동123%인 76,675톤, 「냉동야채」는 동99%인 77,727톤, 「염장등 야채」는 동91인 7,849톤, 「건조야채」는 동100%인 3,677톤, 「초 조제야채」는 동117%인 3,687톤, 「토마토 가공품」은 동133%인 30,079톤, 「그 외 조제야채」는 동111%인 36,451톤, 「기타」는 동107%인 1,067톤으로 나타남.
- 냉동야채, 염장 등 야채 및 건조야채를 제외한 종류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전체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 대비 6개월 연속 증가한 높은 수준으로 추이되고 있음.

○ 6월 신선야채 전체 수입동향

(엽경채류, 양파 등의 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123%로 큰폭으로 증가, 전년동월비로 6개월 연속증가)

- 수입량이 증가한 주 품목은 토마토가 전년동월비 302%인 519톤, 감자가 동223%인 2,000톤, 브로콜리가 동170%인 4,290톤, 결구 양배추가 동164%인 1,481톤, 호박이 동161%인 8,729톤, 셀러리가 동144%인 922톤, 양파가 동123%인 33,489톤, 우엉이 동114%인 3,190톤, 파프리카가 동114%인 2,939톤, 멜론이 동114%인 3,057톤, 당근 및 순무가 동104%인 5,862톤, 마늘이 동103%인 1,304톤으로 나타남.

- 브록콜리는, 초봄의 저온에 의한 생육지연 등의 영향에 의해 적은 입하량이 계속되고 있던 영향으로 전년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입량을 보임. 수입량은 전량이 미국임.
- 결구 양배추는, 6월의 자국산의 출하는 유택했으나 초봄의 저온에 의한 제품부족의 영향으로 전년비 큰 폭으로 증가함. 수입량의 내역은, 제1위는 중국이 1,457톤, 제2위는 대만이 21톤으로 나타남.
- 멜론은, 외식수요나 소매점에서의 컷 프루츠 등의 수요증가 영향으로 전년비 상당히 증가함. 수입량내역은 제1위는 멕시코가 2,851톤, 제2위는 한국이 110톤, 제3위는 오만이 47톤으로 나타남.
- 덧붙여 수입량이 감소한 주 품목에서는 토란이 동40%인 406톤, 생강이 동95%인 1,299톤, 파가 동96%인 4,477톤으로 나타남.
- 토마토의 6월 전체수입량은 519톤으로 전년동월비 347톤(202%) 상회하였음. 수입금액은 1억57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302엔으로 전년동월비 26엔 상승함. 주 수입국 비율은 미국이 59%, 한국이 32%, 캐나다가 9%로 나타남. 6월까지의 누계 수입량은 2,331톤(전년동기비 238%) 수입금액은 7억90백만엔(동257%)으로 나타남.
- 가지의 6월 수입량은 21톤으로 전년동월비 21톤 상회함. 수입금액은 4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217엔으로 한국산만 수입됨.
- 파프리카의 6월 수입량은 2,939톤으로 전년동월비 352톤(14%) 상회하였음. 수입금액은 9억59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326엔으로 전년동월비 15엔 상승함. 주 수입국 비율은 한국이 82%, 네덜랜드가 18%로 나타남. 6월까지의 누계 수입량은 15,017톤(전년동기비 121%) 수입금액은 61억95백만엔(동144%)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백만엔)

품목	'12.1~6	'11.1~6	증감%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계육조제품	82,269	75,027	9.7	중국	41,346	태국	40,091	한국	513
유청(유아용)	1,142	1,516	△24.7	미국	317	네덜란드	247	한국	195
정제당	794	479	65.9	태국	455	브라질	209	한국	81
츄잉껌	67	88	△23.7	한국	30	중국	22	타이완	6
쿠키,비스켓,크레카	3,941	3,880	1.6	미국	505	한국	404	말레이시아	393
코코아조제품	1,175	1,061	10.7	싱가폴	834	한국	154	태국	75
알콜음료	95,738	87,632	9.3	프랑스	33,656	한국	13,491	영국	8,056
맥주	2,633	2,276	15.7	아일랜드	619	한국	395	벨기에	315
쇼티닝	149	159	△6.8	말레이시아	118	한국	17	인도네시아	7
곤약	1,230	1,094	12.4	중국	1,094	인도네시아	85	한국	49
아이스크림	1,181	952	24.1	뉴질랜드	616	오스트레일리아	211	한국	125
인삼	2,113	941	124.5	중국	1,948	한국	147	타이완	16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한국산 동향

- 한국산 알콜음료 전체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13,491백만엔(12,895백만엔) 으로 나타남.
- 계육조제품(삼계탕)은 전년대비 32.9% 증가한 513백만엔(전년386백만엔)을 기록함. 최근 삼계탕이 점점 인기상품으로 대두되어 대형슈퍼등이 구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증가가 계속 기대됨.
- 쿠키,비스켓등 과자류는 전년대비 2.9% 감소한 404백만엔(전년416백만엔)으로 나타남.
- 인삼은 전년대비 177.4% 증가한 147백만엔(전년 53백만엔)으로 대폭증가를 보임.

□ 일본의 가지 시장동향

○ 생산동향

- 가지생산은 출하시기에 의해 주로 동춘(冬春)가지(12~6월)와 하추(夏秋)가지(7~11월)로 구분됨. 시설재배의 보급과 재배기술의 향상에 의해 주년 공급체제가 구축되고 있어 동춘가지는 고치현이나 구마모토현등의 온난한 지역에서 시설재배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하추가지는 군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등의 대도시 근교에서 주로 노지재배에 의해 생산되고 있음.
- 생산자의 고령화나 노동력 부족에 의한 규모축소 등에 의해 재배면적, 출하량 모두 감소경향에 있으며 2010년의 재배면적은 10,300헥타르(동춘가지는 1,210헥타르, 하추가지는 9,050헥타르), 출하량은 247,200톤(동춘가지는 108,400톤, 하추가지는 138,800톤)으로 나타남.

○ 유통동향

- 2010년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월별, 현별 입하수량을 보면 5~10월에 입하가 많고 동춘가지는 고치현산, 후쿠오카현산 하추가지는 토치기현산, 이바라키현산, 군마현산이 주 산지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입하량 약 4만1천톤 가운데 80%를 장난형(長卵形)가지가 차지하고 있고(78.8%), 장가지는 (18.3%), 미국가지는 (2.4%), 소가지는 (0.5%)를 보이고 있음.
-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2011년 가격동향을 보면 장난형가지가 1kg당 275~498엔(연평균 단가 356엔), 장가지는 210~417엔(동334엔)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입하량이 많은 여름철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주년 공급체제의 구축에 의해 연간을 통한 가격의 변동 폭이 작아지고 있음.

○ 소비동향

- 1인당 연간구입량은 2007년의 1,660그램을 피크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는 1,500그램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주로 채소절임, 구이, 볶음, 튀김, 찜, 스프 등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고 있으며 치즈구이, 토마토 찜요리, 카레 등 서양식의 요리에 이용되고 있음.

○ 수입동향

- 전체수입량의 90% 이상을 염장가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주로 업무용 채소절임에 사용되는 신선가지와 냉동식품용의 냉동가지가 수입되고 있음.
- 2011년의 수입량을 보면, 염장가지는 3,461톤(전년대비 1.5%감소), 염장소가지는 1,767톤(동 12.6%증), 신선가지는 68톤(동12.4%감소), 냉동가지는 29톤(동87.7%증)으로 나타남.
- 2011년의 수입국을 보면 염장가지에 대해서는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고 있음. 신선가지는 전량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냉동가지는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태국, 포르투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고 있음.
- 신선가지는 한국에서만 수입되고 있으며 2011년 수입실적은 수입량이 68.4톤(전년78톤)으로 전년비 12.4%감소하였으며 수입금액은 17.6백만엔(전년20.6백만엔)으로 전년비 10.2% 감소함.

○ 시사점

- 신선가지의 경우 일본 자국산의 생산규모가 매년 감소경향에 있어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면 공급처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내의 생산코스트 절감이 가장 큰 과제임.